

의약품 유당 수급균형 청신호

7월1일 수입자유화 따라 ... 96년 소요량중 1482톤 1차배정

의약품 유당의 수입규제가 96년 7월1일 해제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유당배정을 둘러싼 마찰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당, 버터, 연유 등은 정부의 수입규제 품목으로 그동안 수입이 규제되어 왔다. 유당 수입을 규제해온 것은 일단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고 유당의 타용도 사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국내 유당 총사용량 1만2050톤의 26.6%를 차지하는 의약품 유당의 경우 정제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국내 생산이 전혀 없어 수급차질이 빚어질 경우 의약품 제조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당의 경우 수입단가가 톤당 1100달러를 호가해 식품용 600달러, 동물용의약품·비료용 500 600달러인 것과 비교해볼 때 타용도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95년 유당파동이 발생, 제약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는데, 이것은 유당 소요량 5241톤 대비 1차배정분이 1343톤에 불과해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배정받지 못한 유당의 경우 배정유당(양허관세 20%)과는 달리 94.1%의 고관세를 물어야 되는 등 이에따른 피해가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양허관세 적용시 톤당 120만원인 유당이 94.1%의 관세를 적용하면 202만원 이어서 68.3%나 고가이다. 따라서 95년 실사용량 3200톤 중 1차배정분 1343톤을 제외한 1857톤이 부족, 유당가가 오르면서 유당파동이 불가피했으나 2차 2227톤이 배정되면서 진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6년 현재도 양허관세는 20%이며 그외 수입관세는 5% 인하된 89.1%로 여전히 배정받지 못한 유당 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사 필요량 외에도 급작스런 수요증가가 있을 것에 대비, 유당 배정물량과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당관리 현황을 보면, 95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유가공협회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유당의 배분은 매년 12월 다음해 소요량을 조사한 뒤 유가공협회가 배정하게 되어 있다.

의약품 유당의 소요량 조사와 기업에 필요량을 공급 조절하는 것은 제약협회가 맡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해의 필요 유당을 조사해 기업에 공급하고 남은 여유분은 국전원료, 대신무약, 동원약품, 태원약품, 행림약품, 홍성약품, 화덕약품, 화일약품이 8개 소분업소에 배분해 주고 있다.

이 물량은 총 460개 제약기업 중 직접 수입하는 71개사와 8개 소분업소를 제외한 기업이 사용하며 수입기업의 물량이 부족할 때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95년 유당파동시 소분업소가 가격을 올리고 재고물량을 풀지않자 제약협회가 96년 유당 배정시 제외시킬 것을 경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재고량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6년 유당 소요량은 3757톤, 1차배정분은 1482톤으로 정해졌다. 이중 완제기업이 1094.5톤을, 소분업소가 388.5톤을 배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96년 5월까지의 사용량은 재고분까지 갖고 있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1993	1994	1995	1996
소요량	4,791,049	4,735,359	5,241,067	3,757,000
사용량	4,341,994	3,564,026	3,200,000	-
사용비율	90.6	75.3	61.1	-

기 업	소요량	기 업	소요량	기 업	소요량
한국신약	300	동아제약	51	한인제약	30
동원약품	250	삼아약품	50	한국안센	28
청계약품	243	영일약품	50	대웅제약	27
일동제약	240	경남제약	48	영진약품	26
한미약품	220	신일제약	38	건일약품	25
화일약품	215	국제약품	37	금강제약	24
태원약품	200	명인제약	36	원진제약	24
국전원료	146	신평제약	35	동구약품	20
화덕약품	120	태평양	35	동일신약	20
대신무약	100	크라운제	34	삼익제약	20
한중제약	100	약	33	영풍제약	20
홍성약품	90	안국약품	33	제일약품	20
극동제약	84	종근당	31	중경제약	20
한풍제약	67	천일제약	30	태평양제약	20
유한양행	60	삼일제약	30	기 타	257
부광약품	56	진양제약	30		
행림약품	54	한국오가	30	합 계	3,757